

2024 March

# Hana

#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Tel. 02-729-0190

yjlee.r@hanafn.com



## 목차

---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

# 금리

## 2월 동향

연준 1월 FOMC 조기금리 인하 기대 차단 속 견조한 경제지표 등으로 국내외 금리 상승 추세를 나타냈으나, 한은 금통위의 금리인하 소수 의견 등 전반적인 비둘기적 기조 해석 등으로 후반 하락 추세 전환하며 마감

1월 FOMC가 조기 금리 인하 기대 차단한 가운데 미국 경제 지표의 견조함 확인 등에 따라 국내외 금리 상승 출발 시현

1월 미국 주요 물가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금리인하에 대한 발언이 일부 상충하며 높은 변동성 국면 시현

한은 금통위의 선제적 금리인하 가능성 영향 속 주요 연은 총재 비둘기 기조 언급 등으로 하락하다 미 주요 물가 경계감 등으로 상승전환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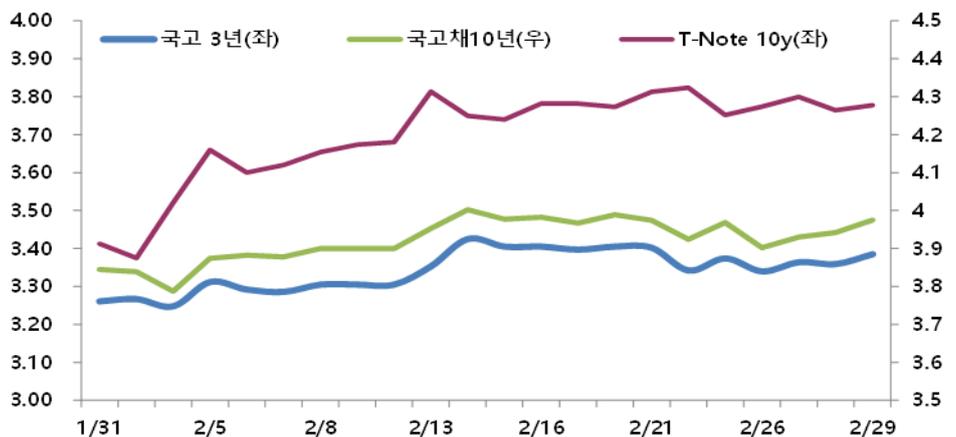
- 월초, 1월 FOMC에서 조기 금리인하 차단 영향이 매파적으로 인식된 가운데, 미 고용지표와 서비스 PMI지표 호조 속 주요 연준 인사들 신중한 금리 정책 발언 등을 소화하며 상승 출발
  - 월 초, '24년 첫 FOMC에서 시장의 3월 금리인하 기대를 벗어난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차단 등이 매파적으로 비춰지며 미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도 상승 출발
  - 여기에 미 1월 고용지표가 예상의 두배를 웃도는 강한 흐름 속 서비스 PMI 등도 호조를 보인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신중한 금리 인하 발언이 이어진 측면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중반, 1월 CPI의 시장 예상 상회로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한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여전한 매파 성향 등으로 상승 추세 지속. 이어 PPI 또한 전월 대비 상승 및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흐름 등으로 국고채 금리의 추세적 상승세 이어진 국면
  - 중반, 미국 1월 CPI가 시장 예상보다 높은 전분기 대비 3.1%로 발표됨에 따라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 그러나 일부 연준 위원들의 매파성향 대비 일부 인사들은 CPI 충격 완화 발언을 내놓음에 따라 국내외 금리 상단이 일부 제한된 양상
  - 그러나, 이어진 미국 PPI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흐름으로 재차 국고채 금리는 상승 전환 시현
- 후반, 미 국채금리 상승에도 대내적 한은 금통위 비둘기적 해석과 수급 요인 및 이어진 연은 총재 도비쉬 기조 언급 등으로 하락 전환 후, 미 주요 물가 경계에 상승 전환 마감
  - 후반, 대외적 미 금리 상승 추세 속에서도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의 소수 의견 반영 등 비둘기적 기조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 가운데 국고채 시장 수급 우위 등의 반영으로 큰 폭 하락
  - 이어 뉴욕 연은 총재의 하반기 적정 시점 금리 인하 적절성 언급 등 다소 비둘기 기조 등으로 추가 하락세 이어졌으나, 미국 1월 PCE 물가에 대한 경계감 반영 등의 요인으로 상승 전환하며 마감

### 2월 평균

국고채(3년): 3.35%

T-Note(10년): 4.27%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 3 월 전망

미 주요 물가의 예상치 소폭 상회 속 견조한 경제흐름에 따른 점진적 물가 감소 경로 예상 등이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판단. 반면 대내적 한은 소수 의견 개진 영향 등이 상단 제한할 것으로 전망

평균	1Q24	2Q24	3Q24	4Q24
국고채(3y, %)	3.30 <sup>(F)</sup>	3.20 <sup>(F)</sup>	3.10 <sup>(F)</sup>	3.00 <sup>(F)</sup>

미 주요 1월 물가지표들이 시장 예상 상회한 가운데 여전히 견조한 경제 지표 등을 고려할 때, 연준 금리인하 시기는 상당 기간 지체될 것으로 예상

- 미국 1월 주요 물가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3월 FOMC 에서도 견조한 미 경제 및 점진적 물가 감소 경로 등으로 시장의 6월 금리인하 기대에 선을 긋는 정책 결과가 예상되는 측면 등이 국내외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1월 미국 주요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제조업 지표 기준선 상향과 주요 경제지표가 여전히 강건함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차단에 연준 정책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 여기에 주요 연준 위원들의 다소 엇갈리지만 매파성향 우위라는 측면도 국내외 금리 상방 압력을 높일 전망
  - 반면, 미국 경제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전망이 불확실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는 점과 대내적으로도 일부 IT수출 등을 제외하고 소비 등이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이 상단 제한 요인으로 판단

중동 분쟁 휴전 협상 기대에도 국제유가 상승 추세 등의 인플레이션 자극에 대한 민감도 높아진 측면 등이 국내외 금리 하단 제한 요인으로 판단

- 최근 중동분쟁 휴전 협상 부각에도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른 인플레이션 자극 이슈에 시장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 여기에 미국 경제가 제약적 금리 수준에도 여전히 견조함 유지하며 주요 경제권역과 차별화 양상 보이는 측면 등이 국내외 금리 하단 지지할 전망
  - 미국 금리 수준이 경제에 대해 제약적 수준임에도 여전히 경제상황이 견조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 경제권역과 차별화 흐름을 나타내는 측면 등이 국내외 금리 하단을 지지할 요인
  - 여기에 최근 중동 분쟁 관련 휴전협상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국제유가가 80달러에 근접하며 인플레이션을 재자극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시장 민감도 확대 등이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에 영향 미칠 전망

2월 국고채(3Y) 금리는 3.25%-3.4% 예상

- 국내 물가 상승 둔화에도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 여전히 높은 상황 속 연준 금리인하 시기 지연 등이 상승 압력을 가하겠지만, 대내적 소비 부진 등에 따른 국내 경기 상황 고려한 향후 3개월내 인하 가능성 제시의 소수 의견 개진 영향 등이 국고채 금리 상단 제한할 것으로 예상
  - 대내적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둔화 추세 나타내고 있음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선택의 신중함에 따른 한은 정책 여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 국고채 금리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국내 경기적 상황이 IT, 반도체 위주 수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비 부진과 최근 광공업 생산 하락 등 경제체질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 이러한 경기적 상황을 고려한 금통위의 금리인하 소수 의견 개진 영향 등은 국고채 금리 상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예상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주요 물가의 시장 예상 상회 속 기준금리 인하 시기 불확실성</li> <li>· 주요 경제 권역과 차별화 양상 지속되는 견조한 미국 경기 흐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내적 경기 회복 모멘텀 부재 속 한은 금통위의 금리인하 소수 의견 개진 영향</li> <li>· 중동 분쟁의 휴전 협상 부각 이슈</li> </ul>

자료: 하나은행

# 달러/원 환율

## 2월 동향

**美 고용 호조와 더딘 물가 둔화 속도로 연준의 금리인하가 기대보다 늦춰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며 달러는 강세. 연준 관계자의 매파 발언과 PCE 발표 전 경계감을 반영하며 1,330원대 레인지 지속**

1월 FOMC 결과가 시장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과 위안화 강세에 환율 상승 압력은 다소 제한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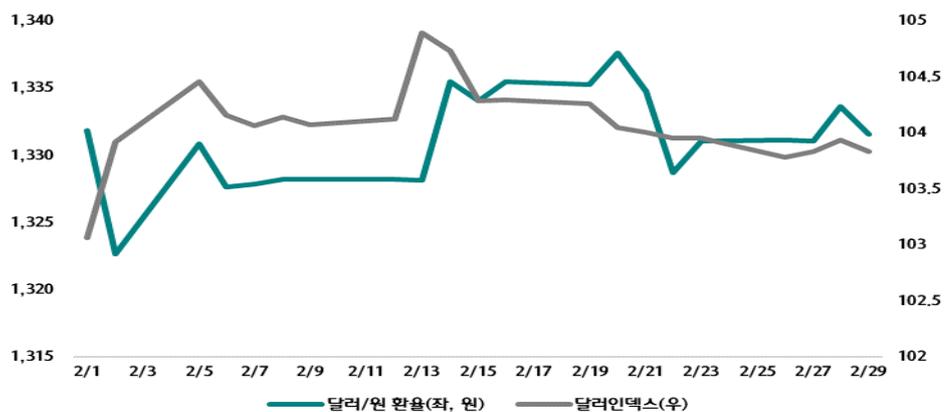
미국 1월 CPI가 3.1% 상승하며 예상치 2.9%를 상회한 데 이어 PPI도 상승세로 전환되자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한은 금통위의 금리동결 결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반영하며 1,320원대로 하락. 그러나 미국 PCE 발표 전 경계심리와 수급 영향 반영하며 1330원대 레인지에서 등락 후 마감

- 월초, 예상보다 매파적인 1월 FOMC와 미국 비농업 고용 호조로 인한 달러 강세에도 국내 증시 상승세 속 외자 유입과 중국 경기부양 기대를 반영한 위안화 강세에 추가 상승은 제한
  - 월초, 1월 FOMC 이후 시장 내 조기 금리인하 전망이 약화되었음에도 반도체 중심 국내 수출 개선 소식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를 반영한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 영향 등에 환율은 하락 출발
  - 이후, 미국 1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2배 가까이 상회한 측면이 연준 매파 성향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로 강달러 나타났으나 중국 증시 부양 지원 기대와 위안화 강세에 1,320원대 중후반 등락
- 월 중반, 미국 CPI 둔화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연준 금리인하 지연 우려 속 장중 1,340원을 상회했으나 수급상 매도 우위와 일부 연준 위원의 완화적 발언에 상단이 제한된 모습
  - 중반, 미국 1월 CPI의 2%대 진입 실패에 따른 Fed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1,340원대 진입했으나 고점 인식으로 인한 수출업체 매도 물량 유입과 시카고 연은 총재의 도비시 발언에 상승 압력 완화
  - 미국 소매판매 지표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미국 CPI에 이어 PPI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측면이 연준 금리인하 시기 관련 불확실성을 부각시키며 달러 지지력 유지되는 가운데 1330원대 중심 등락
- 후반, 엔비디아 호실적에 따른 위험선호 분위기 속 환율 하락했으나 미국 PCE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방향성 부재한 가운데 수급 요인에 영향 받으며 1330원대의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
  - 후반, 한은 금통위의 다소 도비시한 금리동결에도 엔비디아 실적 호조로 인한 시장 내 위험자산 선호 심리 유입으로 1,330원선을 하회했으나 연준 인사들의 금리인하 신중론 등에 재차 상승 전환
  - 이어 미국 PCE 발표 전 경계감이 강화되며 방향성 제한되는 가운데 1,330원대 상단에서의 수출업체 매도 물량 유입과 하단에서의 결제수요 우위에 상하방 경직성을 보이며 1,330원대 초반에서 마감

2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31.4  
2월말 달러/원 환율 : 1,331.5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하나은행

### 3 월 전망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둔화와 연준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달러 지지력에도 시장 내 선반영된 측면과 반도체 중심 국내 수출 개선 등 원화 강세 요인에 의해 환율 상단 제한될 것으로 예상

평균	1Q24	2Q24	3Q24	4Q24
달러/원 환율(원)	1,315 <sup>(F)</sup>	1,290 <sup>(F)</sup>	1,255 <sup>(F)</sup>	1,270 <sup>(F)</sup>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주요 연준 위원들은 금리인하에 대한 신중한 스탠스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에 상당부분 선반영된 측면 고려 시 달러 강세는 제한적일 전망

- 예상보다 더딘 미국 물가둔화 속도에 시장의 연준 금리인하 예상 시점이 재조정된 영향으로 달러 지지력 지속. 3월 FOMC에서도 금리인하 신중론은 유지되겠으나 이에 대한 선반영과 일부 연준 위원의 디스인플레이션 전망 등에 달러 추가 강세는 제한될 전망
  - 미국 2월 물가지표 확인 후 디스인플레이션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연준 금리인하 지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달러 하단을 지지할 요인으로 예상
  - 연준은 3월 FOMC에서도 금리동결 후 신중한 스탠스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시장 내 선반영된 측면과 양적 긴축 완화에 대한 논의 가능성, 연준 위원들의 물가 둔화 추세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은 달러 강세를 제한할 요인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와 BOJ 금융완화 정책 전환 가능성 등 대외적 요인과 국내 수출 회복세 등은 원화 강세를 지지하겠으나 연준 금리인하 불확실성이 환율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임

- 중국 경기 부양책 제시 가능성과 BOJ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등이 상대적 원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연준의 미국 성장을 상향 조정 가능성과 중동 전쟁의 휴전 기대에도 유가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달러 약세 전환은 시기상조로 판단
  - 중국 양회에서의 경기 부양책 제시 가능성 등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될 경우 원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일본 3월 춘투협상 주시 속 BOJ 정책 전환 기대를 반영한 엔화 지지력 등은 단기적 측면에서 강달러 압력을 완화시킬 요인
  - 다만, 3월 FOMC에서 미국 경제성장을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과 중동 지역 불안 장기화 및 OPEC+의 감산 기조 유지 등에 따른 유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 등이 달러에 지지력을 부여하며 원화 강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3월 달러/원 환율  
1,315원 ~1,340원 예상

- 최근 국내 수출 개선 흐름과 중공업체 수주 확대 등 실물경제 모멘텀 강화는 원화 강세 요인이나 2월 한은 금통위에서의 다소 도비시한 스탠스와 연준 금리인하 시기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경계감 등이 환율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 반도체 수출 성장세와 對중국 무역수지 개선 등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국내 수출 개선 상황과 중공업체 수주 확대 등은 외환 수급의 안정에 기여하며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 다만, 2월 한은 금통위에서의 국내 경기 부진을 고려한 3개월 후 금리인하 의견 등장과 유가 상승 등 물가상승 자극 요인으로 인한 연준 금리인하 지연 우려 등은 환율 하단 지지 요인으로 판단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를 경계하는 연준의 신중한 통화정책 스탠스</li> <li>· 미국 경제의 견조함과 예상 보다 높은 인플레이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의 재조정 등에 대한 선반영과 달러 추가 강세 제한</li> <li>· 반도체 중심 국내 수출 경기 개선</li> </ul>

자료: 하나은행

# 이종통화

## 엔/원 전망

연준 매파 기조 다소 완화될 조짐 속 BOI내 통화정책 정상화 언급과 이에 대한 시장 기대 등이 최근 약세 완화에 영향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현 경기적 불확실성 대응이 단기적 우위 점할 전망에 따라 150엔대 소폭 하회 예상

2월 달러/엔 평균환율 : 149.6  
2월 엔/원 평균환율 : 889.7

3월 엔/원 예상범위 : 875~910원

- (엔화 동향)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 통화정책 전환 지연 우려와 미 국채금리 급등에 엔화는 큰 폭의 약세 시현하며 출발. 중반, BOI 부총재의 비둘기 발언과 예상보다 더딘 미국 CPI 둔화세로 인한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약세 압력이 가중되며 달러당 150엔선을 돌파. 후반, 일본 1월 근원CPI가 2.0%로 예상 수준을 상회한 가운데 BOI 관계자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가시화 및 통화완화 조치 검토 필요성 언급에 강세 전환하며 마감
- (엔/원 전망) 최근 BOI 주요 위원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사가 이어진 가운데 시장의 4월 금정위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가 높아지는 점 등이 엔화 강세 전환에 영향을 주요하게 미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난 4분기 성장을 마이너스 기록 후 민간소비, 설비, 건설투자가 전기비 마이너스 기록하며 여전히 부진한 경제흐름 등으로 현 통화정책을 수정하기에 다소 경기적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점은 BOI가 단기적 현 정책 유지를 고수하게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3월에도 전반적인 엔화의 150엔 전후 흐름 속에 소폭 강세 압력 나타날 것으로 예상  
· BOI 통화정책 정상화 언급 이어지며 시장의 4월 회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높아진 점이 엔화 강세 요인으로 예상. 하지만, 경기흐름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는 점에 대응 위한 4월 임금 춘투 이후 정책 논의 가능성 고려 시, 3월 엔화는 현 150엔 수준 소폭 강세 압력 나타나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 엔/원 환율은 미 디스인플레이션, 위험선호 영향의 엔화에 대한 제한적 영향 속 885원대 하향 예상

## 유로/원 전망

유로존 헤드라인 물가 반등 위험 상존에 따른 통화정책 차별화는 유로 강세 요인으로 판단. 반면, 중국 성장 둔화의 유로 경제 전이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 돌파구가 여전히 모호한 점이 전체적 유로 약세 견인할 것으로 예상

2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793  
2월 유로/원 평균환율 : 1,436.6

3월 유로/원 예상범위 : 1,415~1,440원

- (유로화 동향) 미국 고용지표가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시사한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견제 발언으로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세 출발. 중반, 예상보다 양호한 유로존 경제지표와 ECB 위원의 매파적 발언에 가치 반등했으나 미국 CPI 둔화폭 축소에 추가 강세는 제한. 후반, 라가르드 ECB 총재가 유럽 경제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며 재차 강세 보였으나 독일 2월 CPI 둔화로 ECB의 선제적 금리인하 기대가 강화되면서 강세폭 되돌리며 마감
- 최근 안정된 유가 등을 고려하면 미국 인플레이션은 안정세 보이며 차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논할 가능성. 반면, 유로존 헤드라인 물가지표 반등 가능성 상존 등으로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유로 강세 여지에도 중국 수요 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 장기 불황 등 경기 불확실성의 돌파구가 모호하다는 측면이 전월 유로 강세 흐름 되돌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연준 금리인하 가능성 상존 속 유로 물가 반등 가능성이 정책 차별화를 통해 유로화 강세 지지할 요인. 하지만, 중국 성장 둔화의 유로존 전이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장기화로 전반적 유로 약세 흐름 예상  
· 유로/원은 연준 비둘기적 기조, 뉴욕 시장 위험 선호의 상대적 완화 강세로 1,420원 전후 등락 예상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4년 3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b>1 한국휴장(삼일절)</b>	<b>2</b>
				<b>3월 주요 ISSUE</b> 중국 양회(3/4 정협, 3/5 전인대) ECB 통화정책회의(경제전망)(3/7) 선물· 옵션 등시만기일(3/14) 시총 규모별 추가지수 정기변경(3/15) 러시아 대선(3/15~17) BOJ 통화정책회의(3/18~19) RBA 통화정책회의(3/18~19) 미국 FOMC(경제전망)(3/19~20) BOE 통화정책회의(3/21) EU 정상회의(3/21~22)	한 2월 수출/입(YoY +18.0%, -7.8%) 미 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ISM 제조업, 구매물가, 신규주문, 고용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황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2) 중 2월 종합 PMI(50.9) Caixin 제조업 PMI(50.8) 유 1월 실업률(6.4%) CPI[F](MoM -0.4%, YoY +2.8%) CPI 근원(MoM -0.9%, YoY +3.3%)	
<b>3</b>	<b>4 중국 양회 개막</b> 중국 양회(정협 3/4, 전인대 3/5) :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올해 경제 정책 방향, 경기 부양책, 경제성장률 목표지 등 제시  한 1월 광공업생산(MoM +0.6%, YoY +6.2%) 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51.2) 일 4Q 자본지출(YoY +3.4%)	<b>5 미국 SUPER TUESDAY</b> 미국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 : 민주당, 공화당 각 16개주(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경선 진행. 전체 대의원의 36% 결정  한 4Q GDP[P](QoQ +0.6%, YoY +2.2%) 미 1월 제조업 수주(MoM +0.2%), 내구재주문 2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F] 유 1월 PPI(MoM -0.8%, YoY -10.6%) 일 2월 도쿄 CPI, CPI 근원(YoY +1.6%)	<b>6 지준일, Beige Book</b> 한 2월 CPI(MoM +0.4%, YoY +2.8%) CPI 근원(YoY +2.5%) 미 1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9026k) 도매판매(MoM +0.7%), 재고[F] 유 1월 소매판매(MoM -1.1%, YoY -0.8%) 영 2월 S&P 글로벌 영국 건설업PMI(48.8) 호 4Q GDP(전년동기대비, 예)1.4% 전2.1%)	<b>7 ECB 통화정책회의</b> [ECB 통화정책회의]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연 4.5%로 3연속 동결. 초기 인마에는 신중한 입장 (2) ECB는 유로존 경제 둔화에도 불가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고 언급  미 4Q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F](QoQ +3.2%) 단위노동 비용지수[F](QoQ +0.5%) 1월 소비자신용지수	<b>8 미국고용보고서</b> 미 2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353k)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317k) 제조업임금변동(23k) 실업률(3.7%), 경제활동 참가율(62.5%) 시간당 평균 임금(YoY +4.5%) 유 4Q GDP[F](QoQ +0.0%, YoY +0.1%) 가계소비(QoQ +0.4%, +0.3%) 일 1월 가계 소비지출(YoY -2.5%)	<b>9</b>
<b>10</b>	<b>11 연준 BTFP 종료</b> 연준, 은행 유통성 지원 프로그램(BTFP) 종료: BTFP 종료 이후 유통성 규급 위축 우려  한 3월 1~10월 수출/입(YoY -14.6%, -24.6%) 일 4Q GDP(QoQ -0.1%, YoY -0.4%) 2월 통화량 M2(YoY +2.4%)	<b>12 미국 CPI</b> 한은 2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미 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89.9) CPI(MoM +0.3%, YoY +3.1%) CPI 근원(MoM +0.4%, YoY +3.9%) 일 1Q BSI 대형 전업종, 제조업(4.8, 5.7) 2월 PPI(MoM +0.0%, YoY +2.0%)	<b>13</b> 한 2월 실업률(3.0%) 유 1월 산업생산(MoM +2.6%, YoY +1.2%) 영 1월 광공업생산(YoY 0.6%) 월간GDP(MoM -0.1%)	<b>14 선물· 옵션 등시만기일</b> 선물· 옵션 등시만기일 : 3, 6, 9, 12월 두번째 목요일. 추가지수 선물· 옵션, 개별주식 선물·옵션 만기일 겹치는 날 미 1월 기업재고 2월 소매판매(MoM -0.8%) 소매판매 근원(MoM -0.6%) PPI(MoM +0.3%, YoY +0.9%) PPI 근원(MoM +0.5%, YoY +2.0%)	<b>15 러시아 대선(~17)</b> : 러-우 전쟁 중 지휘자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 푸틴 대통령 당선시 2030년까지 정권 연장 한 1월 통화규모 M2(MoM +0.8%) 2월 수입물가(MoM +2.2%, YoY +0.2%) 수출물가(MoM +3.2%, YoY +3.7%) 미 2월 수입물가(MoM +0.8%, YoY -1.3%) 수출물가(MoM +0.8%, YoY -2.4%) 광공업생산(MoM -0.1%) 설비가동률(78.5%)	<b>16</b>
<b>17</b>	<b>18 BOJ, RBA(~19)</b> [BOJ 통화정책회의(~19)] (1) 지난 회의에서 단기금리 -0.1%로 동결, 기준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지속 (2) BOJ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출구전략 모색. 연내 미이너스 금리 해제 등 검토 [RBA 통화정책회의(~19)] 미 3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7.3) 유 2월 CPI[F](MoM -0.4%, YoY +2.8%) CPI 근원(MoM -0.9%)	<b>19 미국 FOMC(~20)</b> [미국 FOMC(~20)] (1)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 5.25%~ 5.50%로 4연속 동결 (2) 양적 긴축에 대해서 3월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미 2월 주택착공건수(MoM -14.8%) 건축허가(MoM -1.5%) 유 4Q 노동비용(YoY +5.3%) 일 1월 광공업생산, 설비가동률(MoM -0.1%)	<b>20</b> [휴장] 일본(춘분절)  유 1월 건설생산(MoM +0.8%, YoY +1.9%) 3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영 2월 CPI (전월비 -0.6%, 전년비 4.0%) PPI 산출 NSA (전월비-0.2%, 전년비 -0.6%)	<b>21 BOE 통화정책회의</b> BOE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5.25%로 4연속 동 결. BOE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지 2%에 도달 하지 않아도 금리 내릴 수 있다고 언급 한 3월 1~20월 수출/입(YoY -7.8%, -19.2%) 미 2월 기준주택매매, 선행지수(-0.4%) 3월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 유 3월 HCOB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F]	<b>22</b> 한 2월 PPI(YoY +1.3%) 일 2월 국내 CPI, CPI 근원 영 2월 소매판매(자동차연료 포함 MoM 3.4%)	<b>23</b>
<b>24/31</b> [일말] 정기 주주총회 시즌 : 결산배당을 확정하는 정기 주주총회 시즌.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 강화하 는 가운데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발 표 등 주목	<b>25</b> 한 2월 백화점, 할인점 매출, 소매판매 미 2월 신규주택매매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3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b>26 중국 보아오포럼(~29)</b> 한 3월 소비자심리지수(101.9) 미 1월 FHFA 주택가격지수 2월 내구재 주문[P] 3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 경기연황 달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컴퍼런스보다 소비자자기대지수 일 2월 PPI 서비스	<b>27</b> 한 4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75) 기업경기실사 비제조업(70) 중 2월 산업생산(YoY +16.8%) 공업기업이익(YoY -2.3%) 유 3월 소비자, 서비스, 산업, 경기기대지수	<b>28</b> 한국 금융안정회의 BOJ 3월 금정위 요약본 공개 미 4Q GDP, GDP 물가지수 2월 미결주택매매 3월 MNI 시카고 PMI,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황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b>29</b> 한 2월 경기순환형 선행 지수 변동 광공업생산 미 2월 개인소비지수, 실질 개인소비 PCE 디플레이터, PCE 근원 디플레이터 소매 재고, 도매 재고 3월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일 2월 실업률, 소매판매, 광공업생산 주택착공건수 3월 도쿄 CPI, CPI 근원	<b>30</b>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